

# 아함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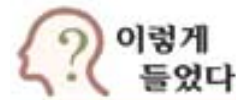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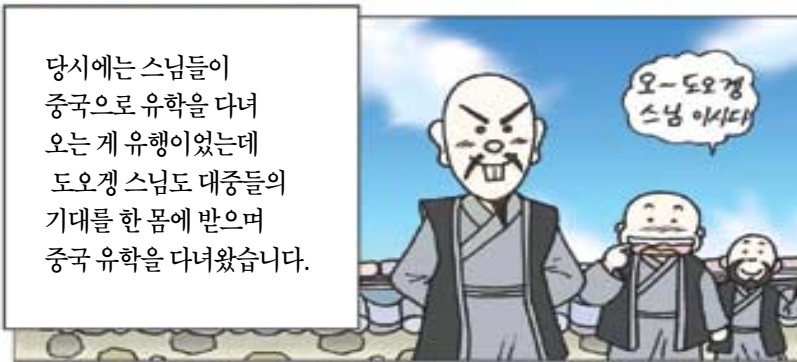
에서 건진 지혜 (제49화)



“세속에 살아도 법을 얻을수 있느니라”

<출전 : 벌역잡아함경 제15:304경 2-477상>

글·그림 한정우  
칼라 정 옥



## 이렇게 들었다

### 주검을 지킨 중학생

‘사회’란 이름의 부모

숨진 어머니 주검 옆에서 6개월 동안 살아온 어느 중학생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었다. 병을 앓고 있는 어머니를 돌본다고 6개월 전 조퇴한 이후로 학교에 전혀 나오지 않던 이 학생은, 어머니를 지키겠다고 외부와 단절된 채 어머니 주검 곁에서 살았다고 한다. 이런 이야기가 늘 그렇듯,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어 힘들게 사는 이웃에 대한 동정과 주변의 무관심에 대한 비난이 이어졌다.

“만일 세상에 부처님이 계시지 않으시면 부모를 잘 섬기지니 부모를 섬기는 것이 부처님을 섬기는 것이다”라는 <대집경>의 말씀처럼 부모님에 대한 효도는 불교에서도 강조하는 덕목 중 하나이다. 심지어 <십지관경>에서는 “어머니 계실 때를 가장 부끄러운 것이라 하고 안 계실 때를 가장 기쁜 것이라 한다. 어머니 계실 때는 한낮이여도 안 계실 때는 저녁이다. 또 어머니 계실 때는 모든 것이 원만하나 안 계실 때는 공허하다”고까지 한다.

돌봐주는 주변 사람도 없는 상황에서 5년 전에 아버지도 잃은 이 학생이 “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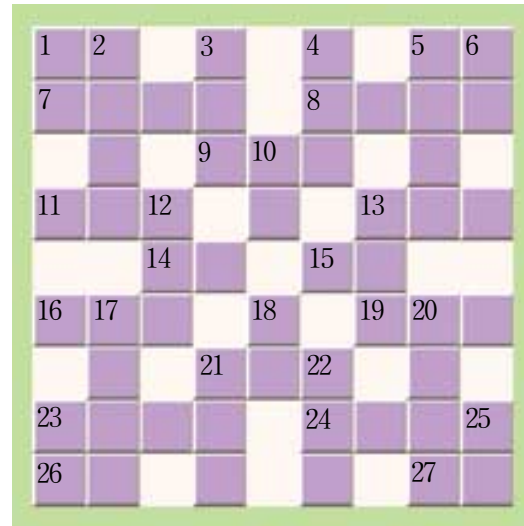
머니의 추한 모습을 남에게 보이기 싫었다”고 하는 말 속에서 선재는 그가 감내하고 있던 삶의 무게가 너무 무거웠다는 생각이 든다.

<아함경>에서는 “효에는 세 가지가 있다. 의식(衣食)을 제공하는 것은 하품(下品)의 효양(孝養)이요, 어머니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은 중품(中品)의 효양이며, 부모님의 공덕을 여러 부처님께 회향함을 상품(上品)의 효양이라 한다”고 한다. 부모님의 공덕을 부처님께 회향하기 위해서는 사회의 모든 사람들이 부모 역할을 하고 있어야 한다고 선재는 생각한다. 누구나 진정한 부모님의 역할을 하고 있을 때, 바로 모두가 부처님이기 때문이다.

그 학생의 담임선생님이 6개월 만에 학생 집을 찾았다고 해서 처음에는 일부의 비난이 있었지만 그 세월 동안의 선생님의 노력이 알려지면서 도움의 손길이 잇따르고 있다고 한다. 마음이 따뜻해져야 할 연말연시. 이제 우리가 나서서 그의 부모가 되어 줄 차례이다.

■ 최원섭(성철선사상연구원 연구원)

## 상식퍼즐



### 가로

1. 불교의 화장의식 5. 소금을 만드는 법 7. 시간을 보내기 위해 삼심포로 하는 일거리 8. 의사가 통하지 않을 9. 죽은 이의 영혼을 인도하는 보살 11. 불경을 읽을 운수 13. 부등산 매매 등을 중개하는 곳 14. 시끄러운 소리 15. 덕성을 갖춘 장수 16. 참회한 내용을 적은 글 19. 큰물이 저서 이루는 난리 21. 우주 만물을 만들고 다스리는 신 23. 보통마사의 다른 말 24. 오래 살아서 죽지 아니함 26. 남을 도와줌 27. 낙심.

<451호 '상식퍼즐' 정답>



### 세로

1. 많음과 적음 2. 한 두 번이 아닌 3. 남을 대신 하여 의사를 표시하거나 어떤 일을 하는 사람 4. 부처님은 중생의 고통을 치료해 주는 의사 중의 큰 의사 5. 엄밀한 공덕 6. 예로부터 이어 내려오는 사상 관습 행동 따위의 양식 10. 몸을 움직여 일을 할 때 또는 소문을 더듬어 찾음 13. 불사의 복장배에 넣는 물건 17. 지기를 돌아보아 비로 심성을 비취 보는 것 18. 파는 물건 혹은 팔기 위해 내놓은 물건 20. 공격하기 어려워 할라사가지 못함 21. 어떤 일을 조사하는 사람 22. 스님들이 법문을 할 때 듣거나 외출할 때 들고 다니는 지팡이 23. 한 부분 25. 죽음.

## 이젠! 깊은 산요초 향기를 "공양" 올릴수 있습니다

**부처님 제일 공양 태우지 않아 연기없는 정각향 출시**  
우리산 나무, 잎, 열매를 따서 해초로 만들어진 전통법제향은 참깨를 볶아 고소함을 내는 비법과 같습니다. 깊은산 자연으로 불자님의 건강은 물론 생활이 더욱 좋아질것 같은 설레임 그 소중함을 안겨드립니다.

- | 사용처  | 사용후  |
|--|--|
| · 법당과 선방으로 배당되고 있습니다.<br>· 최고의 기업 비서실에서 다시 찾는 향입니다.<br>· 불자님의 기정의 화목과 행복은 물론 집중력이 필요한 공부방에서 자동자안까지 숲속의 맑은 정기를 채워드리게 되었습니다. | · 21가지 산요초와 솔잎, 난초국화, 문예 좋은 모과는 물론 나쁜 재앙을 물리치는 경명의 힘까지 함유되어 사용후 배계속에 넣어 다시 사용하는 천연향입니다.<br>· 마음이 편안한 향으로 사용하실 수 있으며 방안의 냄새는 물론 담배냄까지 점점 줄어드는 자연향에서 집안에 수액저장, 시멘트 및 화학 물질의 독성까지 걱정을 덜어주는 천연향 물질의 힘이 담긴 향 알갱이를 하루에 한알(적은일엔 두세알)씩 두경에 보충시켜주시고.<br>· 삼국시대부터 전해진 향낭의 신비로움은 눈에 보이지 않는 "힘"이며 당신의 힘이 될 것입니다. |

**제품속에 영연이 깃드는 신비의 돌**  
경명이 참가되었으므로 한두알씩 주머니속에 넣어 보이지 않는 좋은 향기의 "힘"을 느껴 보십시오.



세계적인 정각향 알갱이를 만드는 법제력!  
**KOREA Aroma** 알갱이  
www.Aromamall.org  
고객센터 051)633-4070 / 향장인 직통 011-9384-4801  
입금계좌 : 국민은행 107-21-0904-797 예금주 : 김도현

## 육법등 (六法燈)



- | 특징   | 활용범위   |
|--|--|
| 1) 부처님께서 보리수아래서 성도 하신후 49년간 설법을 하셨기에 등을 49개 밝히니 그 모양이 마치 보리수 나뭇잎 모양으로 형성되어 있음<br>2) 더러운 곳에서 물들지 않고 항상 깨끗함을 나타내는 연꽃모양을 만들어 등을 밝힘<br>3) 연등의 밝기를 자유로이 조절하여 전기료를 절감할 수 있음<br>4) 등의 재질을 신주 및 아크릴로 제작하여 변형 및 변색이 되지 않음 | 1) 법당내 상단 부처님전 조영 및 장엄등<br>2) 지장단 영가천도를 위한 49개 및 각종 제사단에 활용<br>3) 각단의 인등 및 장엄 등으로 활용 가능함<br>4) 예식장의 주례단 단상의 장엄 및 촛불 대용으로 활용가능<br>5) 장례 예식장의 영가단에 화환대신 장엄 가능함<br>6) 등 장엄이 필요한 각 단상 및 기타장소 |

**(주)동원전기** 주 소 : 경기도 포천군 포천읍 설운리 290-1  
전화 : 031)541-1417 / 팩스 : 031)541-1419